

#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이주 공간: 텔아비브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들의 ‘주말아파트’를 중심으로

임안나\*

## Constructing a Heterotopia of Migrant Space: ‘Weekend Flat’ of Filipino Migrant Care-givers in Tel Aviv, Israel

Anna Lim\*

**요약 :**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거주국 내에서 수행하는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차이의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을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타자화된 공간이 아니라 이주자들의 일상적 경험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질서가 재생산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입주돌봄노동자로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일상 리듬이 주중-작업장, 주말-아파트로 패턴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이 주말마다 점유하는 텔아비브 네베세아난의 ‘아파트’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러한 주말아파트는 비록 주말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필리핀 이주민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인 동시에 경제, 사회, 종교적 활동의 핵심 장소로서 기능하며, ‘위험하고 적대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안식처(shelter)’로 기능함으로써 거주국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주노동자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논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유의미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주말아파트’는 이주노동자 삶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지배집단의 통제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공간을 전유하는 이주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통로로 분석된다. 주말아파트는 이주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독특한 공간으로서 다른 공간들과 경계가 뚜렷하고 철저히 분리된 공간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둘러싼 외부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어 :** 필리핀 이주노동자, 이스라엘, 헤테로토피아, 주말아파트, 경계 만들기, 시공간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e ways in which a “space of difference” is produced and interpret the space as a heterotopic space, drawing the case of Filipino elderly care-givers in Israel. The in-betweens and temporariness of the migrants’ experiences in the Israeli society lead to the creation of a heterotopic space. Paying attention to their particular life rhythm as live-in care-givers, namely weekdays-workplace and weekend-flat,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migrant care-givers build their own society through a variety of spatial practices and multiple social relations based on the flat. In making the flat a perfect form of a lifestyle for their own, the migrants inscribe their presence in the flat in unique ways for different purposes, in a way different to that which surrounds it. However, the structure of flat not only signifies the migrants’ marginality but also reflects the challenging position. The flat has functions in relation to all other space that remains, even if such connection often creates effects of contrast and difference. In this light, the flat is not merely an alienated and circumscribed exotic migrant enclave but a heterotopic space which is dynamically constructed

이 논문은 필자의 Tel Aviv University 인류학 박사학위논문(2015)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icum@hanmail.net

in relation to other sites in the wider societal order.

**Key Words** : Filipino migrant workers, Israel, heterotopia, weekend flat, boundary-making, space and time

## 1. 서론

### 1) 연구대상과 목적

이 논문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필리핀 노인돌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적인 지위와 취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간적 실천을 통해 독특한 이주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공간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주민 삶의 모습이 투영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공간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이주연구에서는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맺는 장소와 공간 개념을 재고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기해왔다(Rodman, 1992; Massey, 1994; Appadurai, 1996; Gupta and Ferguson, 1997; Olwig, 2009; Marcus, 1998; Smith, 2001; Low and Lawrence-Zuniga, 2003; Cresswell, 2004; Faist, 2000). 즉, 장소란 더 이상 고정적이고 분리된 공간으로서 단순히 이주자들의 새로운 활동 무대의 배경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외부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장소 만들기'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주체적 서사에 주목하고 이들이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거주국의 도시 경관을 변형시키는가에 관심을 둔다(Law, 2001; McKay, 2005; Peralta, 2004; Yeoh and Huang, 1998; Parreñas, 2000; Lan, 2003). 예를 들어, Yeoh and Huang(1998)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주말마다 고용주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억압적인 현실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을 '주말엔클레이브(week-end enclave)'라 명명한다(임안나, 2016, 436-7).

하지만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점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공간은 단순히 주류사회에서 분리된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외부세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형성시키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초국적 이주 공간에 관한 연구는 이주자들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특하고 이질적인 공간의 표면적, 물리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간에 내재된 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 외연을 확장시킴으로써 이주민 삶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장소란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이주민 공간에 대한 분석은 유의미한 탐구대상이 된다(Tuan, 1977).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이스라엘로 이주한 필리핀 입주노인돌봄노동자들(live-in elderly caregivers)이 별도의 숙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국 내에서 집단적으로 임대하는 독특한 형태의 거주 공간인 '주말아파트(weekend flat)'에 주목하고, 이들이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일반적 의미의 아파트를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가진 공간으로 생산해내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파트라는 공간을 통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성, 전략, 일상적 실천, 그리고 중층적인 사회적 관계의 스펙트럼을 규명하는 작업은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2) 이론적 틀: 헤테로토피아와 이주공간의 사유

문자적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세포"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이러한 세포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Johnson, 2006, 77). 기

존의 인식론적 질서와 전혀 다른 불연속적이고 이질적인 사유체계를 통해 장소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Michel Foucault(1986)는 이 개념을 ‘타자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몇몇 사회적 공간들 안에서 발견하는 특이한 공간들”이며 “그 기능은 여타 공간들의 기능과는 다른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Foucault는 이 헤테로토피아라는 타자적 공간을 6가지 원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사회는 보편적으로 헤테로토피아를 형성시키지만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Foucault, 1986,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테로토피아는 크게 ‘위기의 헤테로토피아(a heterotopia of crisis)’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a heterotopia of deviance)’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과도기를 겪는 사람들의 공간인 노인을 위한 장소, 월경하는 여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대표되며, 후자는 사회적 규범이나 정상성에서 벗어난 개인들이 수용되는 장소로 여겨지는 정신병원, 감옥, 요양소 등으로 대표된다(1986, 24-25).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1986, 25). 예를 들어, 서구문화에서 모지는 종교의 권위나 전염병 발생에 따라 인식이 바뀌어 오면서도 그 역할은 지속된다. 셋째, 헤테로토피아에서는 한 공간 안에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들이 실제로 하나의 장소에 배치될 수 있다(1986, 25-26).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통정원과 동물원은 세계의 가장 작은 단편인 동시에 세계의 전체성을 드러낸다. 넷째, 헤테로토피아는 종종 이질적이고 비밀상적인 시간의 단절들이 연결된 시간성인 헤테로크로니(heterochrony)가 흐르는 공간이다(1986, 26). 이러한 시간적 단절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영속적이고 무한한 시간의 축적’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흘러가는 축제의 시간’의 두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다섯째, 헤테로토피아는 항상 다른 공간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가지며, 분리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감춰져서 오직 그 대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1986, 26). 여섯째,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다른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데, ‘환영의 공간(a space of illusion)’과 ‘보상의 공간(a space of compensation)’이 있다(1986, 26). 즉, 현실적

인 공간이 환영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완벽하고 잘 정리된 또 다른 실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구성시켜주는 보상의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여러 학문 영역에 속한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적극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축제(St. John, 2001; Karaosmanoglu, 2010), 공항(Salter, 2007), 리브호텔(Lin, 1998), 구금시설(Schinkel, 2009), 19세기의 여자대학(Tamboukou, 2000), 비엔나 정원(Rotenberg, 1995), 밴쿠버의 새로운 공공도서관(Lees, 1997), 라스베가스(Chaplin, 2003), 게이티드 커뮤니티(Hook and Vrdoliak, 2002), 세계문화 유적지(McCoy Owens, 2002), 생선거래창고(Turgo, 2012), 디즈니랜드의 대로(Philips, 2002), 온라인 공간(Davis, 2010)처럼 다양한 형태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시키고 있는 주제는 헤테로토피아가 한 사회에서 일종의 ‘반공간(counter-sites)’으로 기능하는 타자의 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Foucault(1967)에 따르면, 반공간은 특정 사회에서 발견되는 모든 다른 실제 장소들이 동시에 재현되거나 경합하고 전복되는 곳이다. Foucault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통해 두 개의 대립적 공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토피아는 잘 정돈된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배치인 반면, 헤테로토피아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환경들이 모든 배치의 절대적인 타자가 되어버린 공간이다(Foucault, 1986, 24). 즉, 유토피아는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동질적 공간이지만 이러한 허구적 유토피아와는 달리 헤테로토피아는 우리의 실재적 삶의 배치를 이루며 사회 안에서 구성되는 ‘다른 공간들’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질서와 의미의 대안적 형태가 생산되는 장소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것처럼(Shields, 1991; Hetherington, 1997; Saldanha, 2008; Olga, 2013),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의 정상적 일상적 공간에 반하는 공간, 그것들을 지워버리는 공간,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무르는 공간, 혹은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속하는 공간이다”(허경, 2011, 242-3). 이런 측

면에서, 푸코가 비록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명백히 저항의 장소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외부 세계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간, 지배사회와는 이질적이고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면서도 때로는 저항적 의미를 갖는, 그래서 현실 제도의 관습과 제도 자체를 위협하기도 하면서 한 사회의 구성 조건을 형성하는 반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의 생성을 넘어서서 헤게모니적 담론과 질서를 전복하는 새로운 의미와 사회질서가 생산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체계적이지 않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적 환원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Saldanha, 2008; Johnson, 2006), “담론 공간의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실천을 담보하는데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장세룡, 2009, 316)는 문제가 적절히 지적된 바 있다. 필자는 비록 불완전한 개념인 헤테로토피아가 명확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헤게모니적 공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초국적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아파트라는 특정 장소를 통해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아파트가 반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어떻게 장소성(locality)을 생산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도우며, ‘주말 아파트’와 ‘주중 작업장’의 시공간적 패턴으로 재구성되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특수한 일상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형태의 공간성과 그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말아파트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권력과 행위성의 문제를 제기시킨다. Asad(1979, 607)가 주장한 것처럼, “이주자들의 공간적 실천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와 사회적 과정은 지역화된 의미를 변형,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공간적으로 재배치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역동적인 이주자 삶

을 조명해 줄 뿐 아니라 지배집단의 통제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공간을 전유하는 이주민들의 행위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주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스라엘에서 필리핀 이주자들이 입주돌봄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을 담보로 한 단기계약에 기반을 두고 거주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배제된 ‘타자’로서 존재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주변적인 지위와 일시적인 체류조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텔아비브 네베세아난의 아파트를 단순히 주류사회에서 분리된 이질적이고 타자화된 정태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공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이 논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6개월에 걸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한 네베세아난(Neve Sha'anán neighborhood)에서 수행된 현지조사 자료와 문헌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주말아파트는 대부분 네베세아난에 밀집되어 있으며,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이주자들이 돌아오는 주말이 되면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이주민 집거지이다.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들은 입주노동자로서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말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는데다 높은 임대료를 충당할만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대부분 소규모 그룹 단위(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5명)로 아파트를 임대한다. 필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구성원으로 입주하여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비공식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아파트의 구성원으로서 거주하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자들의 주말 생활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네 군데의 아파트에 차례로 거주하면

서 정보제공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조사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관계망 내에 위치한 네베세아난의 여러 공공장소와 고용주의 집,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고용주의 집 인근 공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정보제공자들은 대부분 1995년에서 2012년 사이 돌봄노동자로서 이스라엘에 입국한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이르는 기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의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다.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본 논문에 사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 2. 이스라엘의 필리핀 이주노동자

### 1) 이주자의 주변화와 사회적 위치: 사적공간의 '친밀한 타자(Intimate Others)'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이상에 뿌리를 두고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된 나라로 귀환법(Law of Return, 1950)에 의거하여 전 세계로부터 유입되어 온 유대인 이민에 바탕을 둔 국가이다.<sup>1)</sup> 하지만 전지구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역시 비유대인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구 구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인티파다 발발과 오슬로협정의 여파로 이스라엘 노동시장의 저변을 차지하던 팔레스타인 노동력이 갑자기 감소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중국, 루마니아, 태국, 필리핀, 인도, 네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계약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sup>2)</sup> 2005년부터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부터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1996년 이스라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주노동력의 75%가 건설현장에, 7%가 노인돌봄 서비스직에 투입되었으나, 2010년이 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돌봄 노동 수요의 증가로 노인돌봄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28%를 차지하게 된다(Kemp, 2010, 10)(그림 1).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스라엘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족 영역에서 수행되어 오던 노인 돌봄을 저렴한 비용의 해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공급 위기에 대응한 결과였다(Batram, 1998).<sup>3)</sup> 201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미등록체류자 포함 총 211,500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 노동력의 10%를 차지한다(Natan, 2012).

2007년 이스라엘 내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노동시장에서 노인돌봄영역은 주로 필리핀, 건설은 중국, 농업은 태국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며, 직업별 성비구성은 2010년 신규 채용된 태국인노동자의 94%와 중국인노동자의 96%가 남성이고 필리핀 노동자의 87%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emp, 2010, 9). 단기계약에 기반을 둔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 하에서 입국하기 시작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돌봄 서비스직에 한해서만 고용이 허가되며 이 직종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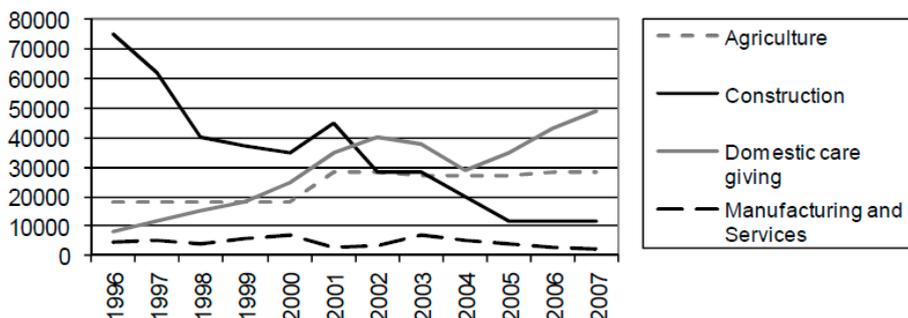


그림 1. 고용분야에 따른 고용허가 수의 변화, 1996~2007년

라엘 내에 체류하는 필리핀 이주자의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필리핀은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송출국 중 하나로서, 2010년 해외로 송출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가사노동자, 간호사, 돌봄 노동자, 엔터테인먼트로서 중동, 아시아, 유럽 등지로 이주하고 있다(임안나, 2015, 107). 이스라엘은 대만, 캐나다와 더불어 돌봄 노동력의 최대 수용국 중 하나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돌봄 직종에 지원하려는 필리핀 이주 여성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6년부터 돌봄 노동시장에 네팔, 인도, 스리랑카, 동유럽(주로 루마니아, 몰도바) 출신 노동자들의 단기 이주를 허용해오고 있지만 필리핀 출신이 여전히 압도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Kav La'Oved, 2010)(그림 2).<sup>4)</sup>

전반적으로 비유대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노동력 수용국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을 일정 기간에만 존재하는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국인인력의 자국 정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의 동반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데다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이입을 제한하고, 고용주의 동의하에서만 노동자의 체류비자 연장을 허용하는 바인딩시스템(binding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체류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지위와 작업 조건은 취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이스라엘 체류 기간이 51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고용주가 사

망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될 경우 이주노동자의 체류권한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노동자는 60일 이내에 이스라엘을 떠나야 한다. 또한 열악한 작업조건이나 고용주의 신체적 학대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를 떠나거나 출산 후 아기와 함께 이스라엘에 남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미등록체류자로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미등록체류자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뒤에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로 보이며 체류지위 상실과 동시에 이민경찰에 의해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된다(임안나, 2016, 443-444).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리핀과 인도, 네팔로부터 노인돌봄노동자들을 채용하여 돌봄의 대상인 노인의 자택에 함께 머무르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주중에 사적공간에서 일하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필리핀 친구나 친인척으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간 불평등한 관계를 구조화하는 바인딩시스템 하에서 인종, 젠더, 계급 차이로 인해 다중적 차원에서 주변화되기 쉽다. 1990년대 중반 노인돌봄노동자의 경우 근무형태 선택에 제한이 없었지만 2010년 개정된 법은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노인돌봄노동자를 고용주의 집에 입주하는 리브인(live-in) 근무 형태로만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Mundlak and Shamir, 2014, 96). 규정상 리브인 돌봄노동자의 업무시간은 저녁 7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된 근무시간이 적용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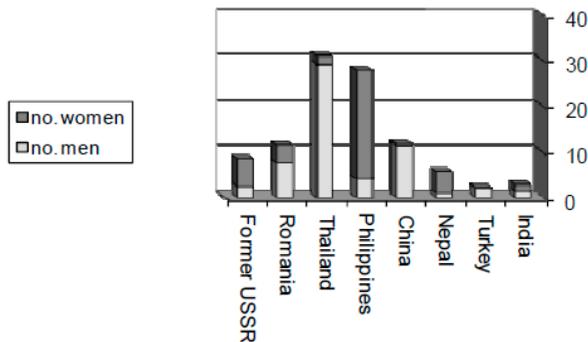


그림 2. 국적/성별에 따른 이스라엘 체류 이주노동자 수(2007년 말 기준, 단위: 1,000명)

아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주 돌봄노동자의 월급은 2015년 기준 4650NIS(한화 약 120만원)로 매년 9일의 명절휴가와 2주의 휴가가 제공된다. 노동자들은 보통 돌봄의 대상인 노인과 단 둘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용주의 가족이 방문하는 안식일(Shabbath)<sup>5)</sup>에는 데이오프(day-off)를 받는다.

작업장과 집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는 입주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작업조건은 더욱 취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체류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 임금체불이나 정해진 업무 이외의 노동력 제공 등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집에 거주하면서 고용주와 동등한 공간 이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방문한 대부분의 집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분리된 개인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주방 이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은 코셔(kosher)<sup>6)</sup>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부엌과 냉장고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이주자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는 코셔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음식섭취 제한은 필리핀 이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대표적인 억압의 경험이다. 사실상, 고용주의 집은 국가와 고용주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으로, 필리핀 이주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을 거부당하는 반면 노동력은 요구되어지는 ‘친밀한 타자’(Lan, 2003; Chang and Ling, 2000)로서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주말마다 몇 시간에서 24시간 짧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제약적인 현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고자 하며, 주말 아파트는 이들에게 해방감과 자율성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공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파트가 이주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일상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장소로 구축되는 방식을 밝힐 필요가 있다.

## 2) 시공간의 분리와 타자화: 네베세아난의 이주민 집거지

텔아비브의 네베세아난은 필리핀 이주자들이 임대하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스라엘 최대의 이주민 집거지이다.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도시인 텔아비브의 남서쪽에 위치한 네베세아난은 1909년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랍인들을 추방하고 유대인 귀환이민자들의 정착지로 건설된 곳으로 이스라엘 최대의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선 1940년대부터 텔아비브의 산업중심지로 성장한 구역이다(Hatuka, 2004, 250).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중심지가 텔아비브 북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네베세아난과 그 주변지역은 텔아비브의 구 도심지로 남게 되었다. 1967년 네베세아난 입구에 새로운 버스터미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내수 경제 침체를 맞아 1993년까지 공사 중단으로 긴 공백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 지역은 심각한 물리적, 경제적 쇠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임안나, 2015, 118). 그 결과, 거주지로서의 인프라를 잃은 네베세아난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유출되는 동시에 이 시기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네베세아난은 이주민 집거지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수차례 발생한 팔레스타인 자살폭탄테러의 희생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체류자라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네베세아난은 ‘불법체류자들의 소굴’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Willen, 2003; Hatuka, 2010). 미등록체류자들은 대부분 네베세아난에 계속해서 머물기 때문에 네베세아난은 이민 경찰과 국경 경찰의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국경 공간(border place)<sup>7)</sup>’으로 형성되어 왔다. 더욱이 2005년부터는 아프리카 난민신청자들의 빠른 유입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면서 네베세아난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sup>8)</sup>

네베세아난의 외국인 인구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브로커에 따르면, 네베세아난 거주인구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와 아프리카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로 구성된다. 네베세아난은 주중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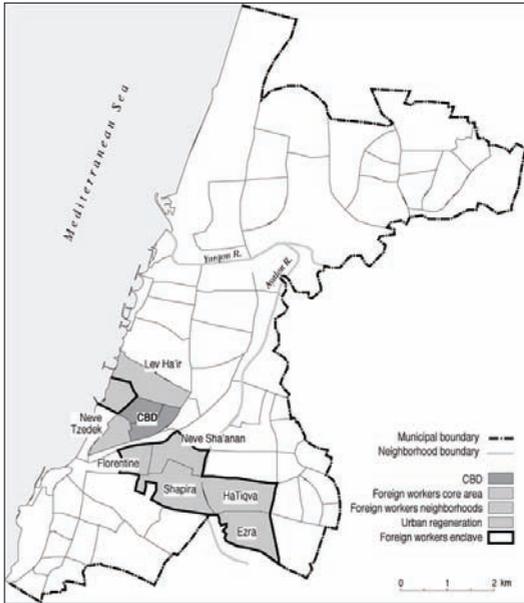


그림 3. 텔아비브 남부 이주민 거주분포  
출처: Shachar and Felsenstein 2002, 51.

한산하고 조용한 반면 공공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정지되는 안식일이 되면 주말휴가를 보내기 위해 돌아오는 외국인 거주자들로 붐비면서 주류 사회의 사회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장소로서 독특한 경관을 형성시킨다. 텔아비브 시는 네베세아난의 슬럼화 현상을 유대인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도시 경관을 헤치는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주거지 재생프로젝트의 일

환으로서 가구당 최소 거주인구수에 제한을 두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네베세아난 지역의 아파트 임대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결국 이주노동자나 난민 외에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든 현실 속에서 네베세아난에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들은 거주자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네베세아난은 1993년에 개장한 텔아비브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이 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로로 중심으로 셸프세탁소, 환전소,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수입된 식재료를 파는 식품점과 돼지고기 정육점 등 이주자들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주거비가 비싸다고 알려진 텔아비브에서 네베세아난은 비교적 월세가 저렴하며 거주자 수에 제한이 없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공동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독특한 거주 패턴이 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별도로 임대할 필요가 없는 필리핀 입주돌봄노동자들을 네베세아난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은 단순히 고향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필리핀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만은 아니다. 네베세아난에 위치한 주말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감시, 억압적인 작업장에서 일시적



그림 4. 안식일 오후 네베세아난의 아파트건물 앞



그림 5. 네베세아난을 활보하는 이민경찰과 국경수비대

이나마 벗어나 해방감과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무대의 후면 영역(backstage)’(Goffman, 1959)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국 내에서 제한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통로로 작용한다(임안나, 2016, 449). 다음 장에서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이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 만들기 실천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사회 공간이 절대적인 타자의 공간인 동시에 외부 세계의 현실을 반영 혹은 재현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구축됨을 보여줄 것이다.

### 3. ‘미정착거주자들(Unsettled Settlers)’의 시공간: ‘주말아파트’

#### 1) 새로운 대안 공간의 구축

이주노동자들의 아파트가 헤테로토피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질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그 기능면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 공간과는 다른 특이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네베세아난의 범죄율이 높고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지는 열악한 거주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유는 아파트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때문이다. 이용자들에게 아파트의 가치와 의미는 고정되고 제한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이 그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네베세아난의 아파트는 보통 4~5층 높이의 노후한 건물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자들이 혼합되어 입주해 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주말에만 아파트를 이용하는데다 부족한 경제적 자원과 불안정한 체류 지위 때문에 대체로 15~20평 규모의 방 2개로 구성된 아파트에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공동으로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지조사 당시 필자가 거주했던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월세는 \$950였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이 매달 동등하

게 분담하여 지불하였다. 특정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임대료 외에도 생활소모품과 세금을 공동분담하고 아파트 공간과 시설물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시킨다.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집단의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아파트에 공동 거주하게 되면 특정한 사회적 구조와 역할 범주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경계 만들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주말아파트는 현지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공식적인 임차인과 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침대’를 임차하는 전차인(subtenant)로 구성되며, 이주자들은 보증금과 계약금을 지불하는 임차인을 ‘바알하바이트(집주인)’라고 부른다. 아파트 공동체의 리더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알하바이트는 아파트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일종의 위계관계를 형성하는데, 특히 새로운 구성원을 수용하거나 내보내는 문제에 있어 독점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아파트 내의 모든 대소사 역시 바알하바이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한편, 아파트 성원들은 아파트 공간이용패턴에 따라 ‘리브인(live-in)’과 ‘리브아웃(live-out)’으로 범주화된다. 모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입주돌봄노동자로서만 채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통근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말에만 아파트를 이용하는 입주돌봄노동자들을 ‘리브인’으로, 주중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근 노동자들을 ‘리브아웃’으로 범주화시킨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위해 체류했던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입주돌봄노동자로서 주말에만 아파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아파트가 비어있었으며, 월세를 비롯하여 전기세, 물세, 가스비 등의 세금을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였다.<sup>9)</sup>

아파트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적 의미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고용주의 집에 입주하여 24시간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고용주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는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휴식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는 일

정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작업장(workplace)’ 혹은 ‘고용주의 집’에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위해 거주한 아파트의 구성원인 월마(여, 43)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저녁 6까지 주어지는 주말휴가가 시작되면 여행용 캐리어에 짐을 챙겨 네베세아난의 아파트로 온다. 휴식공간으로서의 아파트의 의미는 고용주의 집 혹은 아파트의 ‘바깥’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생성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월마는 “그럼 데이오프에 어딜 갈 수 있겠나? 고용주의 집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다. 주말에 일하면 시간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지만 주말만큼은 자유를 되찾고 싶다”고 설명했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고용주가 체류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 시간외 근무나 임금체불 같은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만 했으며, 성폭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들을 일상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

둘째, 아파트는 이주자들이 사회적 규범과 외부의 시선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로서 기능한다. 고용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는 순간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s)’로 분류되어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는 ‘사적 공간’인 아파트뿐이다. 특히, 필리핀 이주노동자들 중 이민 경찰에게 미등록체류자의 위치를 제보하는 ‘레포터’<sup>10)</sup>는 네베세아난에 일상적으로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가시적인 이민 경찰보다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아파트는 또한 ‘혼외커플’에게 은밀한 관계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이주노동자로 동반 입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대부분 고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장기간 분리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외커플의 등장은 이주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

진 현상 중 하나로 인식된다.<sup>11)</sup> 특정한 시간대인 주말이 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필리핀 이주자들이 모여들어 ‘보는 눈’이 많아지는 네베세아난에서 아파트는 혼외관계를 맺은 이들이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윤리적인 시선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일탈’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장소이다. 필자가 조사를 위해 입주한 모든 아파트에는 최소한 한 두 ‘커플’ 이상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커플은 방 안에 칸막이로 분리된 작은 공간에 놓인 2인용 침대를 공유했다. 이 커플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아파트 안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하지만 아파트 밖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

셋째,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친인척이 부재한 이주자들에게 아파트는 공동체 연망을 형성시키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고향의 부재를 보상해주는 ‘귀속 공간’으로 작동한다. 비록 한 명의 이주자가 공식적인 임차인으로서 보증금과 선불금을 지불함으로써 아파트를 임대한 뒤 아파트 내 침대를 다른 이주자들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아파트 공간의 존속을 위해 주거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내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필리핀인으로서의 종족/국민 정체성과 이주 돌봄 노동자로서의 취약한 지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장소유착에 기반을 둔 일종의 ‘유사가족’을 형성시킴으로써 아파트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주자들의 주말휴가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저녁 식사모임은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실천되는 행사이다. 필리핀 음식을 함께 요리하고 나누어 먹는 행위는 단순히 고국의 향수를 달래줄 뿐 아니라 거주자들이 아파트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신지역, 언어, 종교, 젠더, 연령, 학력, 경력 등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아파트에서 열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말 행사인 생일 파티 역시 이주자들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를 통해 상호부조적인 지원 연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내부자와 외부자



그림 6. 아파트의 주말 저녁식사모임

의 경계가 그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일 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위해 파티를 열고 지인을 초대하는데, 아파트 거주자들은 파티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직접 만든 음식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손님들과는 구별되는 내부자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계 모임인 빨루와간(*paluwagan*)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자들 사이에 쌓인 친밀감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직되는 주말 정기모임이다. 이스라엘에서 은행이나 대출 서비스 이용 등 경제적 자본 접근에 제한을 받는 이주자들은 자발적으로 상호부조 기능을 가진 빨루와간을 조직한다. 일반적으로 빨루와간은 지불에 대한 법적 제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소규모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는데(Besley *et al.*, 1993, 805), 비록 소액이지만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모임이라는 특성상 이미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주로 결성된다(임안나, 2016, 457 재인용). 예를 들어, 필자가 거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12명의 거주자들이 빨루와간을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 번의 빨루와간은 3달이 소요되며, 참여자들은 매주 규칙적으로 현금을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키는 동시에 어려운 때 상부상조한다. 이런 점에서, 특정 아파트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주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아파트가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기능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주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써, 비가시적이고 은폐된 작은 아파트 공간을 통해 오히려 외부 세계의 현실이 반영되거나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파트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는 가장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숙소이자 휴가 공간, 귀속 공간, 향수의 공간, 사교의 공간, 안식처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장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아파트를 찾아오는 이주자들은 아파트 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부의 현실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실제로 이들은 아파트를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구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파트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낯선 환경에 놓인 이주자이자 입주 돌봄 노동자로서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일반적인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대안적인 사회 공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 2) 아파트의 익명화: ‘은밀하고 안전한’ 공간에서의 추구

일반적으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은 공공공간처럼 자유롭게 접근가능한 공간이 아니다. 아파트는 출입이 제한된 사적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뚜렷한 경계를 가진 폐쇄적이고 요새화된 공간으로 구축된다. Newman(1972)은 일종의 ‘영역화(territoriality)’야말로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이 표방하는 침범 불가능한 거주환경 성립에 가장 필수적인 기제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적공간인 집에는 출입문이 있지만 네베세아란 아파트의 문은 단순히 거주공간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 의미 넘어서 이주자들에게 유일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철문을 별도로 설치하고 문의 개방과 폐쇄를 철저

히 통제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규제한다. 무엇보다 주말아파트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포섭과 배제라는 엄격한 접근 규제가 뒤 따르는데, 공간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이주자들의 유동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공간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거주자들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때 광범위한 기준에 근거를 둔 선별 과정을 거치며, 공간 질서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아파트의 요새화를 추구한다.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완벽한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Foucault, 1986, 27). 아파트가 가지는 이러한 폐쇄성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거주 환경, 특히 범죄에 대한 불안과 이민경찰의 단속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주류사회의 차별과 도덕적 시선에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앞서 밝혔듯이 주말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네베세아난은 수차례에 걸친 팔레스타인 자살폭탄테러사건과 2005년 이후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유입과 함께 높은 범죄율이 보도되는 등 이스라엘 사회에서 '위험한 도시슬럼'으로 대표되는 지역이다. 특히 현지조사 당시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남성 거주자가 압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네베세아난에서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또한 이민경찰과 국경수비대가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네베세아난은 특히 미등록체류자들에게는 위험한 장소로서 이주자들이 아파트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다. 네베세아난에는 미등록체류자의 위치를 제보하는 레포터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내부인들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외부 공간으로부터의 차단은 많은 이주자들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이자 우선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단속'이나 '입주자 선별'과 더불어 '비밀유지(secretcy)'를 통한 아파트의 익명화는

이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율과 안전이 보장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공간적 전략이다. 안전한 공간의 구축은 "집단적"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의 형성과 구성원 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합법적인 체류 지위가 결여되어 있는 미등록체류자들의 경우 아파트 내 다른 구성원들의 협력과 도움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베세아난의 아파트에는 다른 거주자들의 체류지위, 고향, 이름 등의 사적인 정보를 '외부인'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여권을 미소지할 경우 이민경찰이 아파트까지 따라와 수색하기 때문에 여권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규칙이 공통적으로 통용된다.

또한, 비밀유지의 규칙이 통용되는 아파트 내에서 거주자들은 혼외관계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제한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엘라와 혼외관계를 2년간 이어가고 있는 테리는 아내의 사촌이 소속된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엘라와의 만남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아파트로 옮겼다. 이들의 관계는 아파트 내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사적 정보를 외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전략을 통한 아파트 공간의 익명화는 이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아파트를 주말에만 방문하여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머무르다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웃들과 마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아파트 밖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행위들을 아파트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류 사회의 지배적 담론과 규칙에서 어느 정도 '일탈'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는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주자들의 열망에 의해 뚜렷한

경계를 가진 폐쇄적인 공간으로 구축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확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구성원들이 서로의 사생활을 공유할 때에만 가능하며 ‘안전한’ 도피처로서 아파트가 제공하는 기능이 주말아파트의 존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푸코가 주장하듯이 “타자화는 오로지 다른 장소와의 차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Foucault, 1997, 8). 아파트에 부여되는 ‘안식처’ 또는 ‘해방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아파트를 둘러싼 외부 세계, 구체적으로는 범죄율이 높은 거주지 환경, 이민경찰의 감시, 억압적인 근로 환경, 그리고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 필리핀 이주민 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감시가 도사리는 위험한 공간에 대비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주말 휴가용 숙소나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친밀한 공간, 사교의 공간이 아니라 노인돌봄노동자들이 잠정적으로 이상적 생활과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비일상적인 행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리미널한 공간(liminal space)이며 이스라엘의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난 계약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만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다.

#### 4. 저항과 경계의 공간: 의미의 재편과 탈주

고국과 가족에게서 분리되어 낯선 장소에 재배치된 이주자들은 노인돌봄노동자로서의 공통의 계급 정체성과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을 바탕으로 특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기반으로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파트 안’에 구축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아파트 밖’이라는 외부 환경에 대한 아파트 거주자들의 협동적인 대응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안-밖 경계를 강화시키면서 아파트를 더욱 더 고립되고 독특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주자들에 의해 동질적이고 평등한 공간으로 추구되

는 주말아파트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이질성 만들어냄으로써 ‘커뮤니타스(communitas)’라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좌절킨다(St. John, 2001).

공동거주공간으로서 아파트 내에는 바알하바이트와 전차인, 리브인과 리브아웃이라는 새로운 범주와 독특한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은 아파트라는 공간을 상이하게 인지하면서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아파트를 “내 집”이라고 부르는 바알하바이트와 “우리집”이라고 부르는 전차인들 간 공간 소유에 대한 인식 차이, 바알하바이트에 의한 거주자들의 공간이용 및 사생활 통제, 아파트를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주자와 “오락과 사교의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구분되는 상이한 공간이용방식의 공존은 아파트가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관계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인지되는 다중적인 혹은 양립할 수 없는 의미들이 혼재하는 파편화된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조건과 위험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내부-외부의 경계를 뚜렷이 만들고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안과 밖, 우리와 그들, 안전과 위험, 가까움과 멀, 자유와 억압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경계를 넘어서는 힘(transgressive power)’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다. 우선, 아파트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를 전복시킴으로써 이주자들의 ‘타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아파트 내에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이라는 헤게모니적인 이분법적 구분의 대립은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그 경계가 희미해지며 그 의미가 변형된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은 주말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그들만의 공동체 조직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아파트 내에 “공적 영역”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는 허물어지며, 오히려 그 관계가 전복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집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친밀성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며 가족을 위해 구성되지만, 이주자들의 독특한 공동 주거 현상은 아파트를 단기체류 외국인 노동자이자 입주노인돌봄노동자

인 특정 거주자들에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변환시키며, 이러한 역할과 의무에 의해 ‘주말아파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내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범주 및 위계질서는 이주자들에 의해 독특하게 형성된 것이지만 이것은 주류 사회의 범주들을 변형 혹은 전복시키면서 주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혹은 집주인을 지칭하는 바알하바이트는 아파트 내에서 ‘집주인’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작업장에서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아파트 내에서 바알하바이트와 다른 거주자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대체된다. 아파트 내에서 사용되는 ‘리브인’과 ‘리브아웃’ 범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노동시장에서 ‘입주돌봄노동자’와 ‘통근돌봄노동자’는 근무형태에 따라 규정되지만 이 용어들은 아파트 내에서 전복되어 사용된다. 아파트에서 이주자들은 ‘입주돌봄노동자’가 아파트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의미인 ‘리브인’으로 범주화시키는 한편, 아파트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통근돌봄노동자를 오히려 ‘리브아웃’으로 범주화하여 부른다. 입주형태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은 주중에는 비어 있다가 주말에만 점유되는 것이 주말아파트의 ‘정상적인’ 거주패턴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중에도 점유하는 리브아웃을 ‘일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주중에도 공동거주공간인 아파트에 머무르면서 수도물, 전기, 가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리브아웃의 존재는 아파트 내에서 더욱 주변화 된다.

‘합법’과 ‘불법’의 범주 역시 아파트 내에서는 경계가 애매해진다. 이스라엘 사법체제 하에서 미등록체류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범죄자’로 간주되며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타적인 정책 하에서 미등록체류자는 ‘제거되어야 할’ 배제와 추방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리미널한 공간인 아파트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애매해지고 미등록체류자들은 배제와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복 현상이 나타난다. 앞서 기술했듯이, 필자가 현지조사를 위해 거주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소

속된 모든 거주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할 ‘윤리적’ 의무가 공공연하게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이민 경찰에게 미등록체류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레포터’의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였다. “불법체류자”를 수용하는 아파트는 “일탈적인” 공간으로 비춰지지만 합법-불법의 이분법적 범주는 아파트 안에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며 심지어 미등록체류자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주류 사회의 범주와 질서가 전복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일탈 그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띠며, 기존의 사회공간과는 대립되는 공간으로 현실에 존재하면서도 현실 제도의 관습과 제도 자체를 위협하기도 하는 ‘저항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들은 특정 아파트에 소속되어 경계가 뚜렷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동시에 끊임없이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다닌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이동하는 거주자들이 거쳐 가는 ‘일시적인 경우장소’면서 이주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영구적인 정착장소’라는 모순된 구조를 가진다. 아파트를 둘러싼 상이한 개념과 기대가 충돌함으로써 아파트는 갈등과 경합의 장소로 전환되며 이러한 내부적 차이는 이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주자들이 끊임없이 다른 아파트로 이동하게 한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동안 아파트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이나 아파트 주거 환경을 이유로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주요 정보제공자인 루시의 경우 이스라엘에 입국한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8군데의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주로 아파트 내에서 바알하바이트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필자 역시 2년간의 현지조사 기간 중에 4군데의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아파트를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 거주자들 간, 특히 바알하바이트와 다른 거주자들 간, 리브인과 리브아웃 간의 갈등으로 거주자가 유출되었을 때 바알하바이트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아파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sup>12)</sup>

‘정주(anchoring)’와 ‘이동(mobility)’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호배타적인 경험을 통해 아파트를 특수한 사회적 공간으로 구성시키는 공간적 논리는 ‘규범적인’ 공간성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도전하는 것이다. 이들의 시간성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시간성에 정박해 있으며 아파트가 가지는 일시적인 특성은 이주자들이 끊임없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는 분명한 경계를 가진 폐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정주하는 공동체 공간 개념에 도전하는 동시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싶은 소망에서 만들어졌으나 현실 공간을 더욱 허구적으로 노출시키는 ‘환영의 헤테로토피아’(Foucault, 1986, 27)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장소가 아니다. ‘아파트’라는 개념은 일종의 “구조”로서 지속되며 그곳을 거쳐 가는 수많은 이주자들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생산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텅 없이 사라지는 ‘무’의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일반적인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영구적인 정착 공간’으로 기능하는 실제 공간이기 때문이다.

## 5.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식처로 형성되는 아파트의 특성과 사회적 관계의 실천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주류 사회에서 배제와 일탈의 공간으로 간주되는 네베세아난의 주말아파트를 단순히 분리된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주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타자로 등장한 이주노동자들은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용되지만 정착은 허용되지 않는 ‘미정착거주자’로 존

재한다. 네베세아난의 주말아파트는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필리핀 이주자들이 거치는 최초의 장소이자 주말마다 이용하는 장소로서 애매모호하고 주변적인 지위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수용하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인 동시에 일탈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함으로써 헤테로토피아가 가지는 첫 번째 원리에 부합된다.

네베세아난의 아파트는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거주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이주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변모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헤테로토피아의 두 번째 원리에도 들어맞는다. 필리핀 입주돌봄노동자들이 주말마다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아파트는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적이고 취약한 지위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대안 공간으로서, 가족과 고향의 부재를 보상해주는 ‘귀속 공간’이자 고용주의 집에 대비되는 ‘휴식 공간’, 주류 사회의 규범과 윤리적 제약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안전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피처’이자 ‘해방구’로 기능한다. 아파트가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한 공간 안에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공간들이 하나의 장소에 배치된다”는 헤테로토피아의 세 번째 원리와 연관 지어 설명될 수 있다. 출신지역, 언어, 종교, 젠더, 연령, 학력, 경력 등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은 특정한 장소인 아파트를 기반으로 동질적인 공간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추구하지만 아파트 내부에는 오히려 새로운 차이와 위계질서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단혀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이 돌아오는 주말이 되면 ‘축제’분위기를 내는 아파트가 지니는 시간성은 그것이 가진 공간적 특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주말마다 이벤트 공간으로 기능하는 아파트의 시간적 측면은 아파트 이용자들을 그들의 현실 세계로부터 단절시켜 주는 “홀러가는 축제의 시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의 네 번째 원리와 연관된다. 이러한 시간적 단절은 이주자들이 잠시나마 바깥의 현실세계와 분리되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며 아파트를 비일상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일탈의 공

간으로 전환시킨다. 주말아파트는 ‘노동’이라는 규범에서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되므로 ‘휴가 장소’로서의 아파트는 일상적 시간에서 단절된 공간이며(Topinka, 2010, 57),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주자들로 하여금 주류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허용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헤테로토피아의 다섯 번째 원리가 헤테로토피아를 공공장소처럼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아파트는 폐쇄와 개방의 체계를 가짐으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을 외부세계로부터 분리시킨다. 아파트 공간의 이러한 폐쇄성과 요소화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번째 원리가 적용된다. 이주자들이 네베세아난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류 사회의 질서와 윤리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비로소 “안전”, “도피처”, “휴식 공간”, “친밀한 공간”, 그리고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일반적인 거주공간의 의미와 이주자들을 둘러싼 현실 세계에서 배치된 공간성을 거부하는 비밀상적이며 일탈적인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간과는 차별적으로 배치되는 타자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안적 유토피아의 잠재성을 지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로서 주말아파트는 ‘잘 정돈되고 완벽한 해방공간’이라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장소들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채로 외부 세계에 대항하는 동시에 ‘보상’의 형태로든 ‘환영’의 형태로든 다른 모든 장소들을 노출시키는 대안적인 공간성을 드러낸다. 물론 이 대안적인 공간은 그것을 점유하는 이용자들의 공간적 실천과 의미 부여에 의해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장소”로서 구축되는 것이다.

## 주

- 1)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정착한 유대인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올레(올라가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비유대인 이주 노동자들을 일컫는 ‘오브딤 자림(외국인 노동자)’은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인 체류자로서만 수용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변적인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 2) 1987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매일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11만 명으로 이스라엘 전체 노동시장의 8%를 차지했다(Kemp and Rajjman, 2004).
- 3) 돌봄 시설은 이용자에게 매달 \$2,500에서 \$4,000의 높은 비용을 부담지우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은 매달 \$800에서 \$1000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Iecovich, 2007, 107-8).
- 4)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이스라엘 이주 동기와 이스라엘의 노동 정책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졸고(Lim, 2015)를 참조.
- 5)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휴일로, 대부분의 운송수단과 상점, 학교,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 6) 코셔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규정에 적합한 정결한 음식을 일컫는데(신명기, 14: 3-21, 레위기, 11), 대표적으로 알려진 특징 중 하나가 돼지고기 섭취 금지이다.
- 7) Wonders(2006, 60)는 실제 지리적 국경으로부터 먼 장소에서 수많은 국경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수행될 것인지 정부, 경찰관, 고용주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 8)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텔아비브 시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40%가 네베세아난에 거주하는 난민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cDonnel, 2013).
- 9) 필자의 경우 노인돌봄노동자는 아니었지만 아파트에 상시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리브아웃’으로 구분되었으며, 리브아웃은 주중에도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므로 ‘리브인’이 내는 세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
- 10) ‘레포터’란 미등록체류자로 이민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추후 다른 미등록체류자의 위치를 은밀히 파악하여 신고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일컫는다. 레포터는 이민경찰에게 누군가의 위치를 알려주고 59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필리핀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동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표현된다(임안나, 2016, 462).
- 11) 해외로 이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고국에 남겨진 이주노동자들의 배우자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혼외관계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Arci-

nas *et al.*, 1986; Constable, 2003; Margold, 1995; Pe-Pua, 2003; Pingol, 2010; Tsujimoto, 2013).

12) 아파트 월세를 여러 명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상황에서 거주자의 점진적인 유출은 남아 있는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네베세 아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200NIS(약 \$60) 이상을 주말에만 이용하는 아파트의 월세로 지출하기를 꺼려했으며, 거주자 수의 감소로 월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고정적이고 안정된 공동체가 아닌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공동체를 내포하는 공간이다. 결국 아파트의 존속은 개별 전차인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 간 결속력 있는 관계의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 임안나, 2015, “이스라엘의 이주노동자 유입과 도시공간의 변화,” *지중해지역연구*, 17(1), 101-133.
- 임안나, 2016, “주말아파트와 공동체,” *비교문화연구*, 22(1), 435-483.
- 장세룡, 2009, “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 95, 285-316.
- 허 경, 2011,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3(2), 233-267.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London.
- Arcinas *et al.*, 1986, *The odyssey of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to the gulf reg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 Asad, T., 1979, Anthropology and the analysis of ideology, *Man*, 14(4), 607-627.
- Batram, D., 1998, Foreign workers in Israel: history and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303-325.
- Besley, T., Stephen C., and Glenn L., 1993, The economics of 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4), 792-810.
- Chang, K. A., and L.H.M. Ling, 2000, Globalization and its intimate other: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in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sightings, sites and resistanc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Chaplin, S., 2003, Heterotopia Deserta: Las Vegas and other spaces, in *Designing Cities: critical readings in urban design*, Blackwell Publishers, Malden, MA., 340-356.
- Constable, N., 2003,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divorce and marriage: Filipino wives and workers, *Identities*, 10, 163-180.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s, Malden, MA.
- Davis, T., 2000, Third spaces or heterotopias?: recreating and negotiating migrant identity using online spaces, *Sociology*, 44(4), 661-677.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lectics*, 16(1), 22-27.
- Foucault, M., 1997,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in Leach, N.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NY., 330-336.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Doubleday anchor books, New York.
- Gupta, A. and James F., 1997,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Hatuka, T., 2010, Urbanity, immigration, and everyday Life in Neve Shaanan, in *Violent Acts and Urban Space in Contemporary Tel Aviv*,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23-172.
- Hetherington, K., 1997, *The badlands of modernity: heterotopia and social ordering*, Routledge, London.
- Hook, D., and Michele V., 2002, Gated communities, heterotopias and a ‘rights’ of privilege: a ‘heterotopology’ of the South African security-park, *Geoforum*, 33(2), 159-219.
- Iecovich, E., 2007, Live-in and live-out homecare services and care recipient satisfaction, *Journal of Aging*

- and Social Policy*, 19(2), 105-122.
- Johnson, P., 2006, Unravelling Foucault's different space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9(4), 75-90.
- Karaosmanoglu, D., 2010, Nostalgia spaces of consumption and heterotopia, *Culture Unbound*, 2, 283-302.
- Kav LaOved, 2010, *Kav LaOved shadow report on the situation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Israel*,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48th session, December 2010.
- Kemp, A., 2010, *Reforming policies on foreign workers in Israel*,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03, OECD Publishing.
- Kemp, A., and Raijman R., 2004, Tel Aviv is not foreign to you: urban incorporation policy on labor migrants in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1), 26-51.
- Lan, P., 2003,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s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525-549.
- Law, L., 2001, Home cooking: Filipina migrant workers and geographies of the senses in Hong Kong, *Ecumene*, 8(3), 264-83.
- Lees, L., 1997, Ageographia, heterotopia, and Vancouver's new public library, *Environment and Planning D*, 15(3), 321-347.
- Lim, A., 2015, Networked mobility in the 'migration industry': transnational migration of Filipino caregivers to Israel, *Asian Women*, 31(2): 85-118.
- Lin, J., 1998, *Reconstructing chinatown: ethnic enclave, global chang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Low, S. and Lawrence-Zuniga, 2003,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Blackwell Publishers Ltd., Oxford.
- Marcus, G. E., 1998, *Ethnography through thick and th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Margold, J. A., 1995, Narratives of masculinity and transnational migration: Filipino workers in the Middle East, in *Bewitching women, pious men: gender and body politics in Southeast A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cCoy Owens, B. M., 2002, Monumentality, identity, and the state: local practice, world heritage, and heterotopias at Swayambhu, Nepal, *Anthropology Quarterly*, 75(2), 269-316.
- McDonnel, L., 2013, *The balagan: issues of crime and state interaction in South Tel Aviv*, African Refugee Development Center(ARDC), August 2013.
- McKay, D., 2005, Translocal circulation: place and subjectivity in an extended Filipino community,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7(3), 265-278.
- Mundlak, G. and Hila S., 2014, Organizing migrant care workers in Israel: industrial citizenship and the trade union option, *International Labor Law*, 153(1), 93-116.
- Natan, G., 2012, *The OECD expert group on migration report*, Israel Paliament.
- Newman, O., 1972, *Creating defensible space*,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Rutgers University.
- Olga, L., 2013, A border within a border: the migrants' squatter settlement in Patras as a heterotopia,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28(1), 1-13.
- Olwig, K. F., 2009, A proper funeral: contextualizing community among Caribbean migrant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5, 520-537.
- Parreñas, R. S., 2000,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 Society*, 14(4), 560-581.
- Pe-Pua, R., 2003, Wife, mother, and maid: the triple role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Spain and Italy, in *Wife or Worker?*,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Washinton D.C.
- Peralta, M. T. S., 2004, "From Where Are You Back Home?": *Ethnography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spending Sundays at Satatue Square*, Ph. D. Thesis,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Philips, D., 2002, Consuming the west, *Space and Culture*, 5(1), 29-41.
- Pingol, A., 2010, Filipino women workers in Saudi: making offerings for the here and now and hereafter,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5(1), 29-

- 41.
- Rodman, M. C., 1992, Empowering place: multilocality and multivocality, *American Anthropologist*, 94(3), 640-656.
- Rotenberg, R., 1995, *Landscape and power in Vienn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Saldanha, A., 2008, Heterotopia and structur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9), 2080-2096.
- Salter, M. B., 2007, Governmentalities of an airport: heterotopia and confession,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1, 49-66.
- Schinkel, W., 2009, 'Illegal aliens' and the state: bare bodies vs the zombie, *International Sociology*, 24, 779-806.
- Shachar, A., and Felsenstein D., 2012, Globalization processes and their impact on the structure of the metropolitan Tel Aviv area, in *The emerging nodes in the global economy: Frankfurt and Tel Aviv compared*, Springer.
- Shield, R., 1991, *Places on the margin*, Routledge, London.
- Smith, M. 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Malden, MA: Blackwell.
- St. John, G., 2001, Alternative cultural heterotopia and the liminoid body: beyond Turner at confest,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2(1), 47-66.
- Tamboukou, M., 2000, Of other spaces: women's colleges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UK, *Gender, Place and Culture*, 7(3), 247-263.
- Topinka, R. J., 2010, Foucault, borges, heterotopia: producing knowledge in other spaces, *Foucault Studies*, 9, 54-70.
- Tsujimoto, T., 2013, Negotiating gender dynamics in heteronormativity: extramarital intimacy among Filipino workers in South Korea, *Gender, Place and Culture*, 21(6), 750-767.
- Tuan, Y.,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Turgo, N. N., 2012, Buggabug ang dagat (rough seas): experiencing Foucault's heterotopia in fish trading houses, *Social Science Dilman*, 8(1), 31-62.
- Willen, S., 2003, Perspectives on labour migration in Israel, *Revue europe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19(3), 243-262.
- Wonders, N. A., 2006, Global flows, semi-permeable borders and new channels inequality, Presentation paper at the 2006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in Montreal, Canada.
- Yeoh, B., and Huang, S., 1998, Negotiating public space: strategies and styles of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Urban Studies*, 35(3), 583-602.
- 교신: 임안나,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이메일: modicum@hanmail.net)  
Correspondence: Anna Lim,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modicum@hanmail.net)
- 최초투고일 2016. 11. 10  
수정일 2016. 12. 15  
최종접수일 2016. 12. 28